



## 우리가 미디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박진규

### 미디어가 불편하다

신앙인들에게 미디어는 언제나 불편한 대상이다. 미디어가 대변하는 세속적 가치는 기독교가 꿈꾸는 가치와는 너무 달라 보인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진 재미와 가벼움은 복음이 말하는 삶과 죽음, 죄와 구원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도 거리가 느껴진다. 그렇다고 미디어를 철저히 외면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순간성과 유익이 전혀 없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로서도 마땅할 수 없다.

내게도 그렇다. 신앙인으로서, 또 미디어 연구를 직(職)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둘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건 수월치 않다. 미디어와 종교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대해 연구하게 된 것도 그런 딜레마에서 시작되었다. 미디어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이나 이분법적인 회피로 일관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느꼈다.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우리 공동체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보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또 인터넷 공간에 비춰진 개신교의 모습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결론은, 미디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우리 공동체의 성찰과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미디어의 다음 두 가지 모습에서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

### **귀신이 판치는(?) 대중문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오면 텔레비전은 온갖 ‘납량특집’ 드라마를 쏟아내며 더위를 쫓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떠들어댄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만 되면 수많은 호러장르의 작품들이 핏빛 물든 포스터를 앞세워 극장마다 걸리고, 그 중 한 두 작품은 흥행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보인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은 으레 귀신, 혼령, 천사, 악마, 죽음, 임신, 엑소시즘, 사후세계 등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어 흥미를 자극하고 이를 공포라는 인간의 원초적 감각과 연결시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에는 “퇴마 현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케이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이런 공포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하다. 복음이 말하는 영적 세계와 비교할 때 이런 모습들은 여러모로 부정확할 뿐 아니라 많은 왜곡과 과장, 허구로 가득 차 있다. 더구나 많은 공포물들이 기독교를 비하하기도 한다. 기독교가 말

하는 영적 세계관, 기독교의 많은 상징들,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들의 행태 등이 비틀리고, 비꼬아지고, 때로는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다. 한 개신교 단체는 이런 모습을 두고 “귀신이 판치는 대중문화”로 규정하기도 했다.

### **유독 개신교에 비판적인 미디어**

또 하나 불편한 것은 유독 개신교에 비판적인 언론의 태도이다. 교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개신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그 힘이 강해지는 것과 비례해서 미디어의 비판 강도는 점점 더해갔다. 2008년부터 2년 치 일간신문의 종교면을 분석한 바 있는데, 원래 신문들의 종교면은 비판보다는 이상적인 사례를 발굴해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기사 위주라는 특징이 있음에도 개신교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각 종교 기사의 80%를 넘는데 비해 개신교에 대한 호의적 기사는 50%가 채 안 되었다. 나머지는 비판적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교회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오랜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교회와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와 불투명한 재정,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비상식적 행위 등이 고발되곤 한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공격적으로 전도하려는 독선적, 배타적인 모습도 자주 도마에 올랐다. 몇 해 전 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예수의 신성을 포함한 기독교 교리 자체를 들어 한국교회의 근본주의적 배타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사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



니다. 지구촌 곳곳의 미디어들이 호감이든 비판이든 종교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가 사회 권력으로서 위세를 떨쳤던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시선이 특별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현상이 미디어의 반 기독교적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단편적 평가보다는 왜 미디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미디어는 그 속성상 경제적 의존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반발을 사 위험을 초래할 만한 내용은 가급적 꺼리게 된다. 즉,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뼈대한 묘사는 이미 그러한 인식이 사회 내에 널리 퍼져 있어서 크게 새로울 것도, 위험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 미디어가 여전히 종교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종교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거

두지 않는 것은 사실 그 관심의 역설적 표현일 수 있다. 그건 세속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세상이 종교의 역할을 아예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곳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새로 읽는 미디어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미디어의 두 가지 모습도 다시 읽어야 한다. 먼저,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종교면 분석을 살펴보면 개신교 비판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타종교 및 사회에 대한 배타성,” “종교 내 권력다툼,” 그리고 “교회 내 성장주의, 물질주의”였다.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참 아프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바라는 종교의 모습은 무엇일까? 종교면의 호의적 기사들은 교파에 관계없이 다양성, 관용, 배움, 화합/통합 등의 가치가 담긴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다. 약자의 편에 서고,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의 통합과 화해에 기여하는 종교를 칭찬한다. 종교 사이의 조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모습을 이해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에 실망했는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화를 중시하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종교인의 모습에 환호한다.

미디어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세속사회가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 담겨 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상이 바라는 것은 회개와 갱신을 위한 교회내부의 노력이 주문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의 노력이 성취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짐작하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초월적 존재와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미디어의 모습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 영적 세계에 대한 세상의 절절한 관심을 또렷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첨단 과학으로 대변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것 같지만, 여전히 영적인 현상과 구원에 대한 물음은 이들의 궁극적 관심사라는 걸 말해준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들려줄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이 시대의 “기대”와  
소통의 도구로서 미디어**

나는 미디어에서 종교에 대한 세속사회의 “기대”를 읽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종교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시선은 결국 종교의 존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함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세속사회의 생각과 가치를 매개하는 미디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 시대가 종교에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노력에 힘을 더해준다. 삶 그리고 죽음, 죽음 이후의 삶, 영적 세계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우리 이웃들의 존재적 질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상은 종교가 “뭔가 다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물질주의, 성장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정신, 영성, 공동체에 대한 갈증을 보여준다. 종교가 그런 가치들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다시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기대가 복음이 말하는 바와 다르지 않음도 읽을 수 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높다.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 모습을 이해 못하는 세상을 원망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에 실망했는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는 그런 노력에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성경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